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지준율 5개월 연속 인상과 전망

- 5월 12일 중국인민은행이 5월 18일부터 지준율을 0.5%p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번 지준율 인상은 지난 11월 이래 여덟 번째, 올해 들어 다섯 번째임.
 - 중국의 경우 종전까지 세계 최고치의 지준율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번 인상으로 지준율이 21%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.
 - 이번 지준율 인상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.3%에 달했고 4월의 무역흑자가 3월 보다 급등한(1.4억 달러→114억 달러) 것이 중요한 이유임.

- 중국은 지준율 인상을 인플레이션 방어의 우선적 수단으로 간주하나, 은행대출 축소와 경제과열 완화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준율 인상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대두됨.
 - 종전까지 20.5% 지준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4월 은행 신규대출액이 전월대비 7,396억 위안(약 1,137억 달러)이 증가함.
 - 지준율 인상의 미흡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임.
 - 현재 중국의 1년만기 대출금리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1%p 높은 6.31%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, 당국은 지난 10월 이래 4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, 향후에도 2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이 예상됨.
 - 높은 지준율로 인해 은행이 대기업 대출을 선호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금부족을 겪고 있음.

- 중국 정부는 지준율 인상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고는 있으나, 경기경착륙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준율 인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일부 학자들은 지준율이 23%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함.

<제일경제일보 5/13, Wall Street Journal 등 5/13>